

광주·전남 청소년 '책 쓰기 동아리' 1년 결실 살펴보니

“책 직접 쓰다 보니 독서 내공도 생겼어요”

최근 대구에서 열린 '2016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는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엮이는 책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광주에서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9개 학교 책 쓰기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 그동안의 꿈·희망·생각 이야기를 46권의 책에 풀어냈고 전남에서도 25개 책 쓰기 동아리 학생들이 200권에 달하는 책을 선보였다.

◇년 읽기만 하니, 난 직접 책 쓴다=광주지역 1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올해도 46권의 책을 출간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 책 고르기조차 막막해 하거나 책을 멀리해 독서효율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시기에 어엿한 학생 저자(著者)에 이름을 올렸다. 시와 소설을 비롯, 교양 과학서까지 다양한 주제를 정해 초교, 삽화 작업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마무리했지만 완성도도 제법이다. 전문성도 엿볼 수 있다.

상일여고 학생들은 '메모리즈 광주 (Memories G.J.)'라는 책으로 광주 역사 유적들을 소설, 기행집, 수필 등으로 엮어냈다. 5·18 광주민중항쟁, 양림동, 경양방죽 등 지역 역사·문화 유산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자는 취지에서 최다현·정순·김예원·박윤재·정다연·안혜린·김지은·오정연·이은교·고우리·염예지·김유리·박윤아 등 13명의 학생들이 봉했다.

북초교 김래은·김승요·김유오름 등 3명의 학생이 낸 '빛나는 1313의 우정여행'은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6학년생 13명이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끝내는 세계 13개 나라를 여행하며 우정을 쌓는 줄거리의 소설책이다. 어린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광주동산초 4학년 4반 학생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포토 동시집인 '너의 손을 잡고'는 사진으로 풀어낸 즐거운 추억 이야기다.

신용중 학생들은 음식을 주제로 '식감 있는 MSG'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강인교(파프리카)·서의준(무화과)·김정민(감자)·장정우(장조림)·방민환(미나리)·문주성(견봉)·정대철(도토리)·박형욱(프랑크소세지)·박다영(만두)·박서영(전갱이)·국다연(달토집)·김나영(고구마)·장희원(라면)·박수민(해바라기씨) 등 14명의 학생들이 책이라는 식탁에 글이라는 음식을 차렸다.

조대여중 꿈틀꿈틀 동아리 학생 12명은 중 3학생들의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성장 이야기 '꿈을 찾아 꿈틀꿈틀'을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에 참여, 부스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책 쓰기 체험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올해 광주 19개팀 46권·전남 53개팀 200권 펴내

광주교육청, 30일부터 3일간 문화전당서 출판회

내놓았다. 전남중 아나꿈생(아꿈없이 나누고 꿈꾸는 생각나무) 동아리 회원들은 짧은 기간, 두 권의 책을 만드는 열정을 보여줬다. '호남의 인물, 색을 입히다'라는 책은 호남과 관련된 인물을 여러 색깔과 연계해 소개했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는 중학생들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소설로 표현한 책이다. 조대부고에서는 장예를 이겨내며 꽃다운 삶을 살고 있는 김경원 학생의 자작시 70여 편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과 한동군·이근창·기승주·황지후·박모세·이진우·김승현 등 2~3학년 학생 7명이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소설로 풀어낸 '두번째 발자국'을 선보였다. 광주일고 동아리 '저자거리' 회원인 김동현·김태희·서한성·최수호·박현웅·조태양 등 6명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는 사람 얘기'라는 책에 풀어냈다.

이들 학생들이 낸 다양한 종류의 책들에는 광주교육청이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교육청은 이같은 학생들의 상상력, 고민, 생각을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리는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세 번째!'라는 주제의 전시회다. 학생들은 이날 올 한 해 책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보여주고 재기발랄한 공연 등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전남 진도고 학생들로 이뤄진 '명랑한 진도'는 '진도비전(珍島秘傳)' 시리즈물로 '風, 문화의 지도' 3권을 엮어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서남단 섬, 진도의 역사·문화·생태·미래 총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도비전' 1·2권을 출간한 데 이어 세 번째 시리즈물, 이미 '史, 시간의 지도', '土, 생태의 지도'는 2014~2015년 전국 책축제 출품,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순천 신용초교 학생들은 '이슬우화로 세상 들여다보기' 등 36권을 한꺼번에 냈고 순천 성남초교 학생들도 꿈을 주제로 한 '나의 꿈은 자전거전수' 등 11권을 냈다. ◇읽고 얘기하며 나누다보면 어느새



신용중 학생들이 펴낸 '식감있는 MSG' (왼쪽)와 조대부고 '두 번째 발자국'

썩~욱=조대부고 유일한 책 쓰기 동아리 '글에빛'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시간, 저녁 시간,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해 소재를 찾고 주제를 정하며 책을 엮어냈다. 글쓰기나 출판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펴내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조대부고도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과연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출발했지만 3년째 진행되면서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즐거움이 쏠쏠하다고 지도교사는 귀띔했다.

줄거리와 스토리를 조율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터놓게되면서 한결 친해졌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의성도 키웠다는 게 안봄 교사의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상과학영화 속 미래 기술 한자리에

광주과기원, 28일까지 연구물 전시회

어떤 기술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미래 성장동력이 될 차세대 과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내 과학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인 GIST(광주과학기술원)가 마련한 '연구성과물 전시회'를 통해서다.

GIST가 21일부터 28일까지 학교 오픈관에서 여는 '연구성과물 전시회'는 급변하는 시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연구진들의 최첨단 기술을 모두 망라했다.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인 펨토(femto)과학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인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등을 갖춘 고등광기기술연구소 비롯,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실버헬스바이오연구소, 국제환경연구소, 헬스케어로봇연구소, 초미세먼지진단 연구센터 등 13개 연구소·연구팀이 내놓은 39건의 최첨단 연구성과물을 살펴볼 수 있다.

레이저를 쏘 바닷물 속 고요한 '라만분광'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어 적·녹조 예측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바닷물 깊이에 따른 어장 환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동식 원격 라만분광 시스템'에 대한 고등광기기술연구소 오명규 선임연구원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 펨토초의 극히 짧은 시간동안 1000조와트의 초고강도 레이저를 발생시켜 초고속 광기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모형도 접할 수 있다. 펨토초는 1000조분의 1초라는 뜻으로, 소수점 이하의 영이 무려 14개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전시한 스타워즈 등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



얼굴 표정을 가진 로봇 '키보'

할 것 같은 입체 홀로그램(3D 슈도 홀로그램) 영상도 체험할 수 있다.

이 영상은 3D 안경 없이도 전면·측면 등 다른 위치에서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어 직접 관람이 어려운 해외 유물이나 상설 전시가 어려운 국보급 문화재 등의 극사실적 전시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 김용휘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외 동력 없이 물 자체 무게만으로 물 정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중력식 멤브레인 수처리장치, 얼굴 표정을 가진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키보(KIBO) 등도 만나볼 수 있다.

GIST는 전시 기간, 광주·전남 초·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23일), 'CEO 포럼'(25일)을 열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드론 교육·로봇 체험 행사(26일) 등도 마련했다.

문승현 GIST 총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GIST 연구 성과를 알리고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광주 특성화고 경쟁률 1.16대 1

광주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개 학교가 2981명을 모집하는 데 3449명이 지원해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일 밝혔다.

서진여고는 140명을 뽑는 경영정보과에 40명만 지원,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송고도 신재생과·자동차기계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남대 인문대 68주년 행사

전남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아시아문화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인문대학 현공세미나실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1948년 설립된 사립 대학으로 시작, 1952년 전남대 개교 이후 문리대학으로 통합된 인문대 설립 68주년을 맞아 발간한 '인문대 68년사' 출간 기념회를 22일 대학역사관 앞 잔디광장 등에서 갖는다.

내달 광주·청화 자동차포럼

호남대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 등과 공동으로 '한·중 친환경자동차 산업현황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광주·청화 자동차포럼을 연다.

신안, 비금도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보성, 복내면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87번지 외 5필지(81-1,4,5,6,7) ■ 13만평중 1/5지분, 26000평 ■ 야산, 전기시설, 임로개설 ■ 매매-2억6000만원 	화순, 동북면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면 연월리 산195-2,7,8번지 29381평, 2차선 국도접함 ■ 번지내 1층건물 포함 (53평)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9억, 감정가 - 9억 	북구, 청풍동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청풍동 산272-1 2339평, 지역복지지역 ■ 신촌마을 북서쪽에 위치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3500만원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수기동 23-2 ■ 20층중 9층, 32평, 코너 ■ 전체울수리, 전망최고 ■ 주거겸 사무실, 시세 1억4000만원 ■ 매매 - 1억원
---	---	---	---	--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함,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무안, 일로읍 잡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23-3 ■ 잡종지 1081평 ■ 옆 국유지 약700평 있음 ■ 공장등 용도 다양 ■ 매매 - 2억2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금호동,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금호동 243-6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보5천만원에 월250만 임대 가 ■ 매매 - 6억(조정가), 감정7억
---	---	--	--	---